

# 한국어에서의 정보포장: 대명사 해결을 중심으로\*

이민행  
(연세대학교)  
leemh@yonsei.ac.kr

## Information Packaging in Korean: Focusing on the Pronoun Resolution

Minhaeng Lee  
(Yonsei University)

### 요약

이 논문에서는 국지적인 대명사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인 틀로 널리 알려진 중심화이론의 여러 이론적인 장치들을 정보포장이론에 도입함으로써 정보포장이론을 통제 정보포장이론이라는 새로운 담화의미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로써 한국어 담화상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선행사 탐색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제한된 영역대화라 할 수 있는 호텔예약 대화에 나타나는 영대명사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대명사 해결과 관련하여 정보구조가 중심화이론의 주요 구성요소인 전향적 중심리스트 서열 구성에 직접 반영되어야 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명사의 선행사는 대명사를 담화통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담화통어제약을 제안하여 광역대화에 나타나는 명시적인 대명사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

### 1. 문제제기

한국어의 담화상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선행사를 탐색하기 위해 담화구조를 상징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

- U1: 그러시지 말고, 전용 차선을 거기서 삼각 지서부터 남영동까지는 좀 없애 주시던가.  
U2: 하하, 예예.  
U3: 예, 아니면은 예,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U4: 네.  
U5: 차선을 한 300미터 내지 400미터 더 만들

수가 있어요.

<부대화>

U6: 차선이 좀 넓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쪽이?

U7: 예예.

U8: 예예.

</부대화>

U9: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U10: 예,

위 대화의 발화 U9에 나타나는 대명사 “그것”은 앞선 발화 U5에 포함된 명제 “차선을 한 300미터 내지 400미터 더 만든다”를 선행사로 취한

다. 곧 위의 예는 소위 부대화(subdialogue)가 존재하는 광역담화(global discourse)에서 대명사의 선행사를 탐색해내는 문제이다 [이현호(1998)]. 이러한 예는 일반적으로 담화는 계층화되어 있어서 담화내에서 층위구분이 가능함을 보이는 증거로서 이해되며, 동시에 대명사의 선행사가 동일층위에서 탐색되어야 함을 보인다.

영역이 제한된 한국어의 대화에서는 영대명사가 빈번히 발견된다. 다음의 대화를 살펴보자:

(2)

UI: O<sub>s</sub> 있어요?

U2: 날짜 언제십니까?

U3: O<sub>s</sub> 오늘 저녁에

위의 대화 (2)에서 O<sub>s</sub>로 표현된 영대명사는 거의 모든 발화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의 영역이 제한된 대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광역담화에서의 대명사의 선행사를 탐색하고, 제한된 영역의 대화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영대명사의 선행사를 찾는 과제는 전산언어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온 주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이 제시된 적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이익환/이민행(1999a, 1999b, 2000)에서 제안된 통제 정보포장 이론(Controlled Information Packaging Theory, 이하 CIPT)<sup>1)</sup>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 이론의 틀 안에서 한국어의 대화에 나타난 대명사의 선행사 탐색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통제 정보포장 이론의 기반이 되는 두 이론 정보포장이론과 중심화이론의 주요 개념을 간단히 살펴본다. 3절에서는 통제 정보포장이론의 특성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호텔예약대화에 나타나는 영대명사의 선행사 탐색에 대해 논의한다. 5절에서는 광역담화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선행사를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담화통어제약을 제안한다. 6절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 2. 정보포장이론과 중심화이론<sup>2)</sup>

Vallduvi(1993)에서는 문장을 정보가치에 따라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 삼원구조를 기반으로 한 정보포장이론이 제안된다. Vallduvi에 따르면, 보통 새로운 정보를 지니는 초점부(focus)에 대비되는 이미 알려진 정보를 담은 배경부(ground)가 연결부(link)와 꼬리부(tail)영역이라는 더 작은 정보적인 단위들로 나뉘어질 수 있고, 이 영역들은 각자 독자적인 인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곧 Vallduvi는 정보구조가 초점-배경 구조라는 이원적인 구조가 아니라 초점-연결-꼬리 구조라는 삼원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삼원적인 정보구조가 Vallduvi에 의해 제안된 전통적 정보포장 이론의 근간을 형성한다.

아래의 표 (3)은 기존의 이원적인 정보구조와 삼원적인 정보구조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Vallduvi 1994: 29).

(3)

link	tail	focus
background		focus
topic	comment	

위의 표에 의하면, 초점-연결-꼬리라는 삼원적인 정보구조는 초점-배경 구조이외에 주제(topic) - 평언(comment)이라는 이원적인 정보구조와도 연관을 맺고 있다. 이 경우 연결부가 주제에 대응되고, 꼬리부와 초점부는 함께 평언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3)</sup>

<sup>2)</sup> 이 절은 최재홍/이민행(1999)와 이익환/이민행(1998)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sup>3)</sup> Burng(1996)도 Vallduvi와 마찬가지로, 삼원적인 정보구조를 옹호하는데, Burng은 초점-연결-꼬리 구조 대신에 초점-주제-배경 구조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주제 개념

<sup>1)</sup> 이익환/이민행(1999b)에서는 동일한 이론이 통제된 중심화 이론(Controlled Centering Theory)으로 명명되었다

Vallduvi에 따르면, 하나의 정보구조를 구성하는 세 요소, 곧 초점부, 연결부와 꼬리부는 수행하는 인지적인 기능이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적인 정보구조보다는 삼원적인 정보구조를 가정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입장을 Vallduvi는 취한다. 각 세 구성영역이 수행하는 인지적인 기능은 다음의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4)

- i. 초점부: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청자의 정보상태에 실제적으로 유일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보
- ii. 연결부: 해당 담화지시체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뇌속의 서류카드를 찾아 내도록 하는 지침의 근거
- iii. 꼬리부: 뇌속의 서류카드에 수록되어 있는 특정한 기록(record)을 찾아 내도록 하는 지침의 근거

위 (4ii)과 (4iii)에서 새로 등장한, 서류카드 개념은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의 뇌속에는 실세계의 대상들에 대한 정보들이 수록된 작은 단위의 개별 정보공간이 존재한다는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은 이미 Heim(1982)의 서류철 변동 의미론(File Change Semantics)에서 사용되었다. 정보포장 이론에서는 하나의 서류카드가 다음의 (5)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된다(Vallduvi 1994: 9).

(5)

12
pat (12)
saw 106 ...
.. carry 1056 (12)

카드 위쪽의 숫자 12는 어떤 문맥에서 명사 *pat*으로 표현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래쪽의 숫자들 106과 1056도 실세계의 대상들을

대신 지칭하는 것이다.

정보구조를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의 인지적인 기능이 상이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당연히 그 정보구조가 어떤 유형을 갖느냐에 따라, 해당 문장이 청자의 정보상태에 미치는 영향의 질과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한 삼원구조를 근간으로 한 정보포장이론을 박철우(1998)와 김미경(1999, 2000)은 한국어의 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박철우 1998:128)<sup>4)</sup> (김미경 1999:11)

(6) 애들은 무얼 먹었니?

가. [L Fred는] [F 콩을] [T 먹었어]

나. [L (애들)] [F콩] [T 먹었어]

(7) 민수에게 돌을 누가 던졌니?

가. 민수에게 돌을 순이가 던졌어.

나. [T 민수에게 돌을] [F 순이가 ] [T 던졌어]

위 예 (6)을 통해 박철우는 연결부가 대조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보고, 한국어 ‘-는’이 연결부에 대한 표시사라고 주장한다. 김미경은 예 (7)을 통해 한국어의 경우 꼬리부(T) “민수에게 돌을”이 초점부(F) “순이가” 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정보구조와 관련한 어순 제약 때문에 이 문장이 주어-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라는 기본 어순을 가진 문장으로 부터 꼬리부의 이동이 일어난 경우라고 본다. 김미경(2000)에서는 연결부와 초점부를 각각 세분화하여 대조연결부와 대조초점부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주제(topic)를 일반적인 주제(topic)와 대조주제(contrastive topic)으로 구분하고, 초점(focus)를 일반적인 초점(focus)와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을 구분하는 위혜경(1996)과 이정민(1998) 그리고 최재용/이민행(1999)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은 Vallduvi의 연결 개념에 대응되고, 배경 개념은 꼬리 개념에 대응된다

<sup>4)</sup> 이 예는 위혜경(1996:460)에서 논의된 것으로 박철우가 정보표지를 첨부한 것이다.

이제 대명사의 선행사 탐색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중심화이론(Centering Theory)의 주요 개념에 대해 논의한다. 중심화 이론의 핵심개념은, 초점모형에서의 초점 개념으로부터 발전된 “중심(center)”으로서, 이 개념은 “중심되는 관념이나 강조(central idea, emphasis)”으로 이해된다.

중심화모형에서 설정된 기본가정들은 다음의 (8a)-(8d)에 제시된다.

(8) 기본가정

- a. 하나의 담화분절체는  $U_1, U_2, \dots, U_m$  등의 개별발화들로 구성된다.
- b. 각 발화  $U_i$ 는 일련의 담화지시체들의 집합을 포함하고, 이것들이 바로 전향적 중심(forward-looking centers) 리스트를 구성하며, 이 리스트는  $\{C_f(U_i)\}$ 로 표기된다.
- c. 이 전향적 중심들의 리스트안에는, 후향적 중심(backward-looking center)이라 불리우는 부각된 담화지시체가 정확히 하나 들어 있다. 이 중심은  $C_b$ 라고 표기된다.
- d. 중심리스트에 속하는 요소들간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서열이 존재한다. 그리고, 리스트  $\{C_f(U_i)\}$  안에서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하는 요소는 선호중심(preferred center)이라고 명명되며,  $C_p$ 로 표기된다.

중심화모형은 위에 기술된 기본가정에서 출발하되, 중심 개념과 관련한 몇가지 제약을 설정한다.

(9) 중심화제약

개별 발화들인  $U_1, \dots, U_m$  으로 이루어진 담화 분절체에 속한 각각의 발화  $U_i$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적용된다:

- a. 그 발화안에는 후향적인 중심,  $C_b$ 가 최대한 하나 들어 있다.
- b. 전향적 중심(forward-looking centers) 리스트  $\{C_f(U_i)\}$ 에 속한 모든 요소는  $U_i$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 c. 발화  $U_i$ 의 후향적인 중심,  $C_b$ 는

$U_i$ 안에서 실현되는 요소들 중에서, 직전 발화 ( $U_{i-1}$ )의 전향적 중심(forward-looking centers) 리스트  $\{C_f(U_{i-1})\}$ 에 속하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요소이다.

위의 (9b)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 “실현한다(realize)”는 중심  $C_f$ 가 발화  $U$ 에 의해 기술되어 지는 상황에 속하는 경우에, 발화  $U$ 는 중심  $C_f$ 를 실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 “실현한다”는 영조용사와, 담화상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담화지시체와 담화상황으로부터 추론가능한 개체들을 기술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 (9c)에서 언급된 전향적인 중심들간의 서열은, 영어의 경우에 문법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10)과 같이 정의된다. (Walker & Prince 1997: 6)

(10) 전향적인 중심들의 서열 기준

주어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 기타

이상에서 논의한 기본가정과, 제약 그리고, 서열기준 등을 기반으로 하여, 중심화모형에서는 다음의 (11)과 같은 대명사화 규칙이 제안된다 (Grosz, et al. 1995: 214).

(11) 대명사 규칙(Pronoun Rule)

직전 발화 ( $U_{i-1}$ )의 전향적 중심(forward-looking centers) 리스트  $\{C_f(U_{i-1})\}$ 에 속하는 어떤 요소가  $U_i$ 안에서 대명사로 실현된다면, 그것은 바로 발화  $U_i$ 의 후향적 중심인  $C_b$ 이다.

위의 대명사 규칙에 따르면, 어떤 발화의 전향적인 중심리스트안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요소가 다음 발화에서 대명사로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제 한국어의 담화를 예로 들어, 중심화모형의 틀안에서 영대명사의 선행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자.<sup>51</sup> 다음은 한

<sup>51</sup>중심화이론의 틀안에서 한국어의 담화분석은 노용균(1991)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국어의 담화이다 (최인훈 [희색인]에서).

(12)

- i. 독고준은 쓰기를 멈췄다.
- ii.  $O_s$  한 개 남은 감자를 집어서 입에 넣었다.
- iii.  $O_s$  손을 뻗어서 벽장문을 연다.
- iv. 아래위 두 칸으로 나뉘어진 벽장 안은 조그마한 잡화상 못지않게 다채롭다.

위의 담화 (12)에 속한 개별 발화 (12i), (12ii), (12iii)과 (12iv)의  $C_b$ 와  $\{C_f\}$ 는 각각 다음의 (13i)-(13iv)에 제시된다.

- (13) i.  $C_b=[ ? ]$   $\{C_f\} = [\text{독고준}]$
- ii.  $C_b=\text{독고준}$   $\{C_f\} = [\text{독고준,감자,입}]$
- iii.  $C_b=\text{독고준}$   $\{C_f\} = [\text{독고준,손,벽장문}]$
- iv.  $C_b=^{(?)}$  벽장  $\{C_f\} = [\text{벽장}]$

최초 발화 (12i)의  $C_b$ 는 존재하지 않고,  $\{C_f\}$ 는 [독고준]이다. 이 리스트안의 유일한 요소인 '독고준'이 가장 상위의 서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9c)에 의해서 다음 발화 (12ii)의 후향적 중심인  $C_b$ 가 된다. 그리고 대명사규칙에 의해, 발화 (12ii)의 영조용사  $O_s$ 의 선행사는 그 발화의 후향적 중심인 '독고준'으로 이해된다. (12iii)의 영조용사  $O_s$ 의 선행사의 '독고준'이 탐색되는 과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발화 (12iv)의 후향적 중심은 '벽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직전 발화 (12iii)의 전향적 중심에 '벽장'이 속하지는 않지만, '벽장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세계지식에 의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술한 중심화이론에 의해서는 세계지식에 바탕을 둔 추론이 전향적이거나 후향적 중심(center)의 구성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는지가 명시적으로 형식화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논의한 중심화이론의 대명사 해석 규칙은 담화전개 양상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 유형은 상대적으로 더 선

호되는 유형과 덜 선호되는 유형이 존재한다는 경험론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아래의 표 (14)에는 네 가지 유형의 담화 전개양상이 전향적 중심( $C_f$ ), 후향적 중심( $C_b$ )과 선호되는 중심( $C_p$ )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되어 있다.

(14) 네 가지 유형의 담화전개 양상 (transition) (Walker, et al. 1994:8)

	$C_b(U_i) = C_b(U_{i-1})$ 혹은 $C_b(U_{i-1}) = [?]$	$C_b(U_i) \neq C_b(U_{i-1})$
$C_b(U_i) = C_b(U_i)$	지속(continue)	약전환(smooth-shift)
$C_b(U_i) \neq C_b(U_i)$	유지(retain)	급전환(rough-shift)

위의 표에 따르면, 직전발화가 담화상의 첫 발화이어서 그 발화의 후향적 중심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발화의 후향적 중심과 같고, 동시에 현재발화의 후향적 중심이 현재발화의 선호되는 중심과 동일할 때, 담화의 전개양상은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반면, 직전발화의 후향적 중심이 현재발화의 후향적 중심과 같지 않고, 또한 현재발화의 후향적 중심도 현재발화의 선호되는 중심과 동일하지 않을 때, 담화의 전개양상은 '급전환' 된 것으로 규정된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이러한 담화전개의 네 가지 양상간에는 선호성간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된다(Walker, et al. 1994:7). 다음 (14)에는 이러한 선호성에 대한 규칙이 정의되어 있다.

- (14) 담화전개의 양상에 관한 중심화규칙  
네 가지 유형의 담화전개 양상간에도 서열이 있다. "지속"은 "유지"보다 선호되고, "유지"는 "약전환"보다 선호되며, 또한 "약전환"은 "급전환"보다 선호된다.

지금까지의 중심화 이론의 틀안에서의 연구

는 주로 국지적인(local) 담화에 집중되어 왔다. 곧 중심화모형은 국지적 담화 결속성이론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Walker & Prince 1997).

### 3. 통제 정보포장이론 (Controlled Information Packaging Theory, CIPT)<sup>6)</sup>

통제 정보포장이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 개념을 근간으로 하며, 이익환/이민행 (1998)에서 제안된 확대정보포장이론과 Brennan et al. (1987)에서 제시된 중심화이론(Centering Theory)의 개념을 접목시킨 이론이다. 이 절에서는 통제 정보포장이론(CIPT)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CIPT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정보구조 유형을 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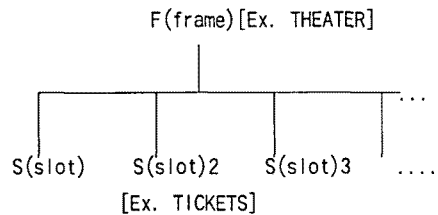
- (15) a. 연결-꼬리-초점 구조 (L-T-F 구조)
- b. 연결 - 초점 구조 (L-F 구조)
- c. 꼬리 - 초점 구조 (T-F 구조)
- d. 초점 구조 (F 구조)
- e. 슬롯연결-초점 구조 (SL-F 구조)

위 (15)(a)-(15)(d)에 제시된 네 가지 정보구조 유형은 Vallduvi(1994)의 정보포장이론(Information Packaging Theory)에서 제시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CCT에서는 다섯 번째 정보구조 유형으로서 (15e)의 슬롯연결(Slot Link)-초점(Focus) 구조를 도입한다. 이 구조는 다음의 (16)과 같은 대화의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

- (16)
- a. A: Why don't you go to the theater more often?
  - b. B: TICKETS are expensive.

우리는 (16b)의 명사구 'tickets'이 (4a)의 명사구 'the theater'와 지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실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지적 지식을 표상하기 위해 Minsky(1975)에 의해 제안된 프레임(frame)개념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tickets'를 'the theater'에 연관시킬 수 있다. Minsky는 우리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각각이 여러 슬롯(slot)들로 구성되어 있는 프레임으로 표상되어진다고 가정한다. 우리가 가진 세계지식에 의하면, "theater"라는 프레임이 가진 여러 슬롯중의 하나가 명사구 'tickets'로 채워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17)에서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7) 프레임과 슬롯의 구조



이러한 프레임-슬롯 분석에서, (16a)가 발화될 때, 'the theater'라는 정보카드가 청자의 인지기구조에서 활성화되고 명사구 'tickets'은 이러한 활성화에 의해서 유인되는데, (17)에 [ ]으로 표시되어 있다.

프레임과 슬롯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는 다섯 번째 정보구조 유형으로서 슬롯연결(Slot Link)-초점(Focus) 구조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Vallduvi의 이론을 확대한다. 이제 위의 예 (16b)는 다음의 (18)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 (18) [<sub>SL</sub> TICKETS] [<sub>F</sub> are expensive]

(18)에 나타나 있듯이, (16b)의 명사구 'tickets'를 일종의 연결부로 취급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 하이퍼링크(hyper-link)라는 개념을

<sup>6)</sup> 이 절에서의 논의는 이익환/이민행(1999b)를 토대로 하여 기술되었다

도입한다. 'is expensive'라는 새로운 정보는 (16b)의 명사구 'the theater'에 연결된다. 우리는 추가적인 정보카드를 만듦으로써 'theater'와 'tickets'사이에 하이퍼링크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동사구 'is expensive'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는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 'theater'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진다.

새로운 정보구조 유형인 슬롯연결(Slot Link)-초점(Focus) 구조는 이익환(1994)에서 의해 논의된 소위 다리(bridging)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19)의 예들을 보자.

- (19) a. John entered a large dining room.  
 b. The chandelier hung by an imported gold chain.

(19a)의 명사구 'a large dining room'은 (19b)의 명사구 'the chandelier'에 연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시적 관계는 하이퍼링크에 의해 제대로 포착될 수 있는 바, 다음 문장 (20)이 양자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 (20) The large dining room has a chandelier.

문장 (20)은 (19a)를 (19b)에 연결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Vallduvi의 정보포장 이론은 (16)이나 (19)와 같은 예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는 반면, CIPT에서는 새로 도입한 슬롯연결-초점 구조에 의해 이러한 다리현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CIPT의 두 번째 특성은 광역담화에서의 담화 구조(discourse structure)를 기술하기 위해, 담화구조와 일반적인 파일카드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는 중심통제파일카드(center controlling file card)를 설정하는 점에 있다. 하나의 중심통제파일카드는 (21)에 기술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21) 중심통제카드의 구조

카드 번호
동일수준 담화의 담화지시체 집합
직전발화의 전향적 중심리스트
상위수준 담화 중심통제카드에 대한 하이퍼링크
하위수준 담화 중심통제카드에 대한 하이퍼링크

다음의 (22)는 중심통제카드의 예이다.

(22) 중심통제카드의 예

3
7 9 10 14 15
[ 14 15 ]
↔ 1
↔ 4

중심통제카드와 함께, 우리는 또한 일반적인 파일카드가 그것이 속하는 담화층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파일카드는 (23)에 주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23) 일반적인 파일카드의 예

13
..... .....
↔ 4

중심통제카드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광역담화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선행사 탐색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5절에서 논의된다.

#### 4. 호텔예약대화에 나타난 영대명사

일련의 담화에는 항목들의 리스트가 존재하며, 각각의 항목은 대화의 중심(center)가 될 수 있다(Walker & Prince 1997). 최재웅 & 이민행(1999)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중심 개념은 한국어의 영대명사의 선행사를 찾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이제 호텔예약대화에 나타나는 영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24) (G: 손님, H: 호텔종업원)

- U1 G: O<sub>s</sub> 있어요?  
 U2 H: 날짜 언제십니까?  
 U3 G: O<sub>s</sub> 오늘 저녁에  
 U4 H: 네?  
 U5 G: O<sub>s</sub> 오늘 저녁  
 U6 H: 예, O<sub>s</sub> 가능한데요.  
 U7 G: 예?  
 U8 H: .....요금은 십이만 천원인데요.  
 U9 G: 예  
 U10 H: 어- O<sub>s</sub> 저희 호텔 카드 같은 것 소지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U11 G: O<sub>s</sub> 없어요.  
 U12 H: 그러세요.  
 U13 G: 네.

U14 H: 그래도 저희가 똑같아요, O<sub>s</sub> O<sub>s</sub> 삼십프로(퍼센트) 디스카운트 해 드릴게요.

위의 대화에는 영대명사가 아주 빈번히 나타나 있는데, 각 발화에 나타나는 영대명사의 선행사를 복원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25)와 같다.

(25)

- U1 O<sub>s</sub> = 빈 객실  
 U3 O<sub>s</sub> = 숙박일  
 U5 O<sub>s</sub> = 숙박일  
 U6 O<sub>s</sub> = 예약  
 U10 O<sub>s</sub> = 청자  
 U11 O<sub>s</sub> = 화자  
 U14 O<sub>s</sub> = 화자, O<sub>s</sub> = 청자

위에 정리된, 호텔예약대화에 나타나는 영대명사의 선행사들은 모두 호텔예약이라는 상황과 깊은 연관관계에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앞서 논의한 바 프레임 개념을 여기에 적용하자면, 호텔예약 프레임(frame)이 활성화되면서, 그 프레임에 속하는, '빈 객실', '숙박일', '예약'과 같은 슬롯들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이들이 영대명사의 선행사로 쓰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 대화 (24)의 다섯번째 발화 U5 "O<sub>s</sub> 오늘 저녁"이 다음의 (26)과 같은 정보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26) [ O<sub>s</sub> ]<sub>SL</sub> [ 오늘 저녁 ]<sub>F</sub>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호텔예약과 같이 영역이 제한된 대화에 영대명사가 나타나는 경우, 주로 슬롯연결 - 초점 구조를 나타낸다고 보고, 이에 따라 영대명사의 선행사 탐색을 위해 중심화이론의 전향적 중심서열이 정보구조의 개념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다음의 (27)과 같이 수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27) 예약대화 분석을 위한 전향적 중심 서열  
슬롯연결부 > 연결부 > 꼬리부 > 초점부

이 입장에 설 경우, 앞서 예 (7)에서 본 살피  
본 바와 같이 슬롯연결부, 연결부 등 각 성분이  
여러개의 중심으로 구성되는 발화상황도 가능  
하다. (김미경 1999.11)

(7) 민수에게 돌을 누가 던졌니?  
가. 민수에게 돌을 순이가 던졌어.  
나. [T 민수에게 돌을] [F 순이가 ] [T 던졌어]

위의 예 (7)(나)의 경우 꼬리부에 “민수”,  
“돌” 그리고 “던지기” 등 세 개의 중심이 속하  
므로, 이들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2차 전  
향적 중심서열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원래 중심화이론에서 제안된 문법기능  
에 기반한 전향적 중심서열 (10)을 2차 전향적  
중심서열로 간주하려고 한다.

(28) 2차 전향적 중심 서열 (=10)  
주어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 기타

정보구조를 전향적 중심서열에 반영한 입장에  
따라 호텔예약 대화를 분석할 경우에, “호텔  
예약”이라는 연결부에 속하는 슬롯연결들이, ‘빈  
객실’, ‘숙박료’, ‘숙박기간’, ‘숙박일’, ‘예약’ 등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  
기서는 여러개의 슬롯연결 중 어떤 것이 해당  
발화 (예컨대 U5)에 나타나는 영대명사의 선행  
사인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데, 선  
행사의 결정절차에 관여하는 제약이 아래 (29)  
에 정의된 개념양립성 제약이라고 본다 [정국의  
1998].

(29) 개념양립성 제약 (The constraint on  
conceptual compatibility)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모든 개체는 반드시  
개념적으로 양립적인 명시적인 표현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 개념양립성 제약은, 호텔예약 프레임의 슬  
롯들은 특정한 술어와 함께 쓰이는 표현들이라  
는 관찰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들 슬롯과 술어  
간의 관계는 아래의 (30)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30) 빈 객실 :: 있어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숙박료 :: 얼마예요?  
숙박기간 :: 일박, 이박  
숙박일 :: 오늘, 내일  
예약 :: 가능한데요

곧, 개념양립성 제약이란 영대명사의 선행사  
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여럿일 경우, 술어와 어  
울리는 슬롯이 선행사로 선택되도록 하는 제약  
이다.

### 5. 광역담화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선행사 탐색

일반적으로 하나의 대화는 여러 개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다.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그 중  
몇 개는 독립적인 단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는데, 이를 부대화(subdialogue)라고  
부른다. 아래의 대화 (31)은 그러한 부대화가  
포함된 광역담화이다.

(31)

U1: 서울 올라오셔서 뭘 하셨습니다?

U2: 서울 올라와서는 맨 처음에 인제 그 낙  
산 꼭대기에 그 아주 그 천막촌 같은 데 인자  
<부대화>

U3: 낙산이면 자 동대문쪽?

U4: 예 // 동대문에 있습니다

U5: 예 예

</부대화>

U6: 그리 갔었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물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U7: 예.

위 (31)과 같은 광역담화에서, 발화 U6의 대명사 '그리'의 선행사는 바로 선행하는 부대화(U3-U5)에서 탐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현호(1998)에서 제안된 이론으로서, 여기서는 이 이론을 부대화위치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이 꼭 그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강한 제약임을 우리는 다른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담화 (32)를 살펴보자.

(32)

U1: 그래서 인제 에 좋지 내가 그래한다 해가지고 해 볼라니까 다른 거는 자신있는데 수학이 문제예요.

U2: 음.

U3: 그래 인제 청계천 거 가 가지고 전과 4학년짜리부터 침 훑어내려가 보니까 4학년짜리부터 봐야 되겠더라고요.

<부대화>

U4: 국민학교 4학년?

U5: 예.

U6: 예

<부대화>

U7: 분수 나누기 이런

U8: 아, 예

U9: 그거 다 잊어버렸으니깐

U10: 예

</부대화>

</부대화>

U11: 그것은 몰래 감춰놓고 인제 그걸 보면서 자꾸 보니까 인제 그건 쉽게 되더라고요.

U12: 예예.

U13: 국민학교 거기는 금방 더듬어 보니까 되고,

U14: 그렇게해서 인제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된 거죠 몰래.

위 대화에는 부대화가 두 번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sup>7)</sup>, 이 대화는 부대화 하나가 또

다른 부대화를 가지는 복합적인 담화구조를 보여준다. 이 대화의 발화 U11에 등장하는 대명사 '그거'의 선행사는, 부대화들 안에서 찾을 수가 없고, 상위부대화가 시작되기 직전의 발화 U3에 나타나는 '전과 4학년 짜리'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현호(1998)의 부대화위치론이 너무 강한 제약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아래에 제기되는 대화도 부대화위치론에 대한 좋은 반례이다.

(33)

U1: 네 그분한테 3년동안 그러면

U2: 예.

U3: 역학을 좀 배우시고

U4: 예 그리고 나니까 3년하고 나니깐

U5: 네.

U6: 보호지에서 풀려난 거죠.

U7: 예.

U7: 나도 좀 뭔가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U8: 예.

U9: 우선 호기 호구지책을 해야 되니까

U10: 예.

U11: 그래서 인제 역학사무실을 채리면서 '인제'에 방황하던 생활이 끝난 것 같아요.

U12: 예.

<부대화>

U13: 그때가 그러면 몇 살이었습니까?

U14: 그 때가 스물 여섯인가 일곱 그 정도였 습니다.

U15: 예,

U16: 근까 열여덟 열여덟에 집에 나오서 가 지고 스물여섯 한 십여년 동안을

U17: 십년 독도를 한 거죠 인제.

U18: 그러셨습니까?

U19: 예.

</부대화>

U20: 지금도 어 성명철학원을 열고 계십니까?

U21: 예 지금은 인제 직업적으로는 안 하구요.

U22: 예 [@@]((해))

U23: 한 이십여년 뒤 삼십여년 가까이=

U24: 아

U25: =하는 사람이 있으니깐 참 먼저 해 주고

<sup>7)</sup> 이현호 교수가 제공해 준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죠.

U26: 예.

U27: 아르바이트를 좀 하는 거죠.

위 대화의 발화 U13에 나타나는 대명사 그 때<sup>8)</sup>의 선행사는 발화 U11에서 기술된 주제인 “방향을 끝낸 시기”를 가리킨다. 이 경우 대명사의 선행사가 상위담화에 위치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여, 광역담화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선행사 탐색과 관련하여, 이현호(1998)의 부대화위치론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다음의 (34)와 같은 담화통어 제약을 제안하려고 한다.

(34) 담화통어 (discourse command) 제약  
담화상에서 선행사는 대명사를 담화통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담화통어는 아래의 (35)와 같이 정의된다.

(35) 담화통어 (discourse command)

담화상에서 어떤 표현  $\alpha$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리고 그럴 경우에 만 표현  $\beta$ 를 담화통어한다.

- (i)  $\alpha$ 와  $\beta$ 가 동일한 담화층위에 속한다.
- (ii)  $\beta$ 가  $\alpha$ 가 속한 담화층위의 하위 담화층위에 속한다.

위의 담화통어제약에 따르면, 대명사의 선행사는 동일한 담화층위나 상위의 담화층위에서 찾아져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화 (32)의 발화 U11에 나타나는 ‘그거’의 선행사는 부대화가 아닌, 동일한 층위에 존재한다. 한편, 부대화위치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논의된 대화 (31)의 U6에 나타난 대명사 ‘그리’의 선행사는 부대화속의 발화 U3에 들어있어서 담화통어제약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나, 부대화가 시작되기 직전의 발화 U2에도 나타나고, 이 U2는

발화 U6와 동일한 담화층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화통어제약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담화통어제약이 통제 정보포장이론(CIPT)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에 논의해 보자. 하나의 예를 보자.

(36)

U1: 그러시지 말고, 전용 차선을 거기서 삼각지서부터 남영동까지는 좀 없애 주시던가.

U2: 하하, 예예.

U3: 예, 아니면은 예,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U4: 네.

U5: 차선을 한 300미터 내지 400미터 더 만들 수가 있어요.

<부대화>

U6: 차선이 좀 넓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쪽이?

U7: 예예.

U8: 예예.

</부대화>

U9: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U10: 예,

이 대화에서 U9에 있는 대명사 ‘그것’은, 약 300미터에서 400미터 길이의 차선을 추가로 만드는 하나의 사건(event)을 선행사로 갖는다. 이 사건은 발화 U5에 의해 활성화되는 여러 중심들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CIPT에서는 사건도 하나의 중심으로 간주되어 통제카드안의 전향적 중심리스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발화 U6에 나타나는 명사 ‘차선’은 오직 부대화 내에서 후향적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는 U9에 있는 대명사 ‘그것’의 선행사를 U9와 동위한 층위에 속하는 발화 5A에서 찾아야 한다. 곧 이 경우 사건자체가 선행사가 되기 때문에, 발화 U6에서 발화 U8에 이르는 하위층위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담화통어제약에 의해 예측할 수 있다.

<sup>8)</sup> 지시표현 그 때를 여기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간주한다

## 6.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대화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선행사 탐색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제한된 영역대화라 할 수 있는 호텔예약 대화에 나타나는 영대명사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 선행사 탐색과 관련하여, 정보구조적인 관점에서 슬롯 연결성분이 영대명사의 선행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심화이론의 주요 구성요소인 전향적 중심리스트 서열의 최상위에 슬롯성분이 위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어떤 영대명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여럿 일 경우에 가장 적합한 선행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별도로 '개념양립성 제약'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 대화에 나타나는 명시적인 대명사의 선행사 탐색과 관련하여서는 대명사의 선행사는 대명사를 담화통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담화통어제약을 제안하고, 담화통어 개념을 정의했다.

## 참고문헌

- 김미경 (1999), "정보구조화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이동규칙," 언어 제 24권 제 1호, 1-22
- 김미경 (2000), "Dynamics of Information Packaging in Korean," In: *Proceedings in PACLIC14*, 177-186.
- 노용균 (1991), "A centering approach to the \*[case][topic] restriction in Korean," *Linguistics*, 29, 653-668.
- 박철우 (1998),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익환 (1994) "Bridging Situations and NPI Licensing," in: Seligman/Westahal, eds., *Situation Theory and Its Applications*,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이익환, 이민행 (1998). "지시적 표현과 정보구조의 해석을 위한 인지적 모형," 언어 23.1, 65-85.
- 이익환, 이민행 (1999a). "On the Anaphora Resolution in Korean Dialogues," Harva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490-501.
- 이익환, 이민행 (1999b). "한국어 대화에서의 대명사의 선행사 탐색 - 통제된 중심화이론적 접근," 제 11회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82-388.
- 이익환, 이민행 (2000), "On the Discourse Analysis in Korean Dialogues," In: *Proceedings in PACLIC14*, 207-218.
- 이정민 (1998), "Contrastive topic: a locus of interface--evidence from Korean and English," In: K. Turner, et al. (eds.)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CRISPI 1)*, Elsevier Science.
- 이현호 (1998). "한국어의 부대화 연구," 인지과학 9.3, 47-59.
- 이현호, 송영채, 신창원 (1998). "한국어 상위대화 복귀 시점의 표층 표지 및 생략 표현에 관한 연구," '98 인지과학 봄철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5-50.
- 정국 외. (1994). 한국어특질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 1994년도 연구보고서.
- 정국 외. (1998). 음성언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운율구조 및 담화구조 연구. 한국통신 1998년도 연구보고서.
- 정소우 (1999), "정보포장이론의 지식저장소 구조와 기능," 담화와 인지 제 6권 1호, 179-208.
- 차건희, 송도규, 박재득 (1997). "한국어 대응과 생략 해결을 위한 센터링 이론의 적용," '97 한글과 한국어 정보처리 발표논문집.
- 최재웅, 이민행 (1999). "초점," In: 강범모외, 형식의미론과 한국어기술, 3-51. 한신문화사, 157-205.
- 위혜경 (1996), "Felicity Condition of Korean and English Contrastive Topic", In: *Proceedings of PACLIC 11*, 459-468.
- Brennan et. al. (1987). "A Centering approach to pronoun," In *Proc. 25th Annual Meeting of the ACL*, Stanford, 155-162.
- Büring, D. (1996), *The 59th street bridge accent: On the Meaning of Topic and Focus*, Ph.D. Diss., University Köln.
- Cormack, S. H. (1992). *Focus and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Ph.D Thesis, University of Edinburgh.
- Grosz et. al. (1995). "Centering: A Framework for Modeling the Local Coherence of Discourse,"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203-225.

Mitkov, R. (1995). "Anaphora Resolution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Machine Translation," IAI Working Paper.

Vallduvi, E. (1990). *The informational component*.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Vallduvi, E. (1994). "Updates, Files, and Focus-Ground", In Bosch et. al. (ed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Journal of Semantics*. 649-658.

Walker & Iida & Cote (1994), "Japanese discourse and the process of centering", *Computational Linguistics* 21.

카드 번호
동일수준 담화의 담화지시체 집합
직전발화의 전향적 중심리스트
상위수준 담화 중심통제카드에 대한 하이퍼링크
하위수준 담화 중심통제카드에 대한 하이퍼링크